朝鮮日報
第二夕刊
十三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趙膏藥 (定價 五錢 二十錢)

# 朝鮮産業은綜合經濟 米穀政策內外地一貫
## 小磯拓相의議會答辯
### 衆議院豫算總會

【東京電話同盟】十三日의衆議院豫算總會는 午前十時三十二分開會

吉植庄亮氏(政友中島派)登壇 米穀의持越高는年七八百萬石을理想으로하는데 拓相은道의見地에서 大體어느程度를理想으로하는가

小磯拓相 米穀需給에는當局의樂觀을 信賴하여 作戰上何等不安이업다고생각한다 戰時食糧政策에 重大關心을가지고 昨年一部兵士에 休暇를주어 耕作에 從事케한일이잇다 되도록 協力해가려한다

吉植氏 農相은十五米穀年度의 消費需給量을 九千五百萬石이라하는데 節米其他를 考慮하여도 今年六月에는 內地米는 六十八萬石이 不足할줄생각한다 政府는此際에 拔本塞源的方策을 꾀할必要가업슬까 또 政府는米量確保하여 難局을打開할必要잇지안는가

島田農相 現狀으로부터 絶對數量에 相當餘裕가잇다 如何하여 圓滑히供給하는가가 큰問題이다 또天候도생각하지 안흐면안된다 政府로서는 一方으로 節米를하고 消費量減少를꾀하여 安定할수잇슬줄 생각한다 集荷及配給에는 必要한法令의改正 地方長官에依한指導 一般의協力을생각하고 外米輸入米穀措置等을꾀하면 大體로 悲觀아니하여도 조타고 確信한다 全國의米穀을 政府가모으는 所謂米穀國營制는 아직생각하고잇지안타

吉植氏 第三國同盟大臣會日本에 輸入하여 滿洲國에 그만치 外貨를줄이는如何

櫻內藏相 日滿經濟一體의見地에서 大豆에關하여도 研究하겟다

吉植氏 內地와朝鮮의 米穀消費關係에關하여 拓相은 어떠케考慮하고잇는가

小磯拓相 朝鮮의産業政策은 綜合經濟를 行하고잇는데 米穀政策에關하여는 內外地를 通하여 一貫한 政策을쓰지안흐면안되므로 內地와 外地와의 交流가必要하다 外地에서남은 米穀過剩은 內地의需要에補充하고 그래도 남을時는 今後建設될 日滿支經濟建設의必要에充當함이 至當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 內地로부터 外地에對하여 移出할수잇는雜穀의 供給確保의 결음을꾀하여 必要하다고생각한다

吉植氏 米穀統制法에 根本的改正을 加할意思는업는가

農相 米穀事情의 變化에 應하여 改正하지안흐면안된다 그러나 只今根本的改正을 加할생각은 업다

北昤吉氏(民政) 八紘一宇의精神에關한 政府의 解釋을 듯고십다

松浦文相 八紘一宇의意義는 神武天皇御創業의 大精神으로 宏大無邊의 大御心을널리 天下에펴는 말슴으로拜한다 이御精神에依하여 我國이 外國에臨할境遇 精神的意味로 侵略的意味는업는데다만 平和的으로한다고 解釋할수도업는것이다

北氏 나는이것을 現代的으로解決하여 資源領土의公平한分配, 人種의交流移住의自由等 萬邦協和, 四海平等의意味로 解하는데 文相은如何

文相 八紘一宇의意味는 내가至今말한바와갓다

北氏 人類共同의敵인 共産主義를 日獨伊以外의 國家에도波及시키지안는다는것이 防共協定의目的이다 外相의所見如何

外相 防共協定은 第三인터내슌날의 國際的組織에 對하여 利害를 가치하는國家와 聯携하여 그侵入及破壞工作을 豫防하려고 生긴것으로 協定調印中 그氣分에 多少다른國家가잇서도 協定그것은 存續하지안흐면 안된다 그意味로 今年防共協定은 今日依然存續하고잇다한다

北氏 白鳥大使가 歸京後한演說에서 防共協定强化에關한 獨逸의要求에對하여 日本에應하지아니햇기때문에 獨蘇不可侵條約을締結하엿다고말하엿는데 外相은 如何히생각하는가

外相 日獨防共協定强化의內容은 今日發表할時期는아니나 只今말슴한點은 잘못듣는 말인줄생각한다

이리하여 午後零時十分 休憩하엿다

(寫眞은 小磯拓相)

# 石炭價引上考慮
## 藤原商相貴院서答辯

【東京電話同盟】十三日의貴族院本會議는 午前十時二十三分開會, 小倉正恒子(研究)가 電力問題의核心을 衝하려는 處女登壇에 緊張의 氣가돌엇다

小倉正恒子 登壇『昨年八月以來 電力制限은 必至가되어 九月부터二割 本年一月下旬 平均三割制限을보고 一月二十日에는 大體送電停止가되어 關東은 約四割制限을밧고 지난十日에는 電力調整令의 發動을보게되엇다 節電은 모든産業을通하여 四割五分의 電力制限을 밧게되지안흘수 업게되엇다 그리고 이대로는 軍需工業及一般産業中 大口의것 平均四割五分 一般産業 中小口의것 二割五分 交通電氣三割五分이 되엇다』라고 關西電力饑饉의 實情을 述하고

軍需産業平和産業을 不問하고 밧는影響은 頗히 甚大한바가 잇다 그리고 多數從業員은 僅僅六割에當하는 休業手當을 甘受하여 物價高의 生活苦와 싸우고잇는 一方 業主는 能率의低下에 加하여 休業手當의 負擔을하지안흐면안된다 今日의狀態가 今後도 繼續되면 中小産業이 倒潰에 瀕하는 勿論 國家經濟上 重大한問題를 惹起치안는다고 保證할수업다 特히 現在는 電力制度에 依하여 民心不安을 增加하는 一方 全産業의 活動停頓에依한 不安의 氣가 橫溢하고잇다

當局의 石炭配給電力制限等에 對한 計畫性이 缺乏하여 旱魃만이라고는생각되지안는다 電力不足의 打開에는 萬般努力은 勿論 그經驗에依하야 政策의缺陷도 是正하야 拔本塞源的解決을 圖謀하기바란다 發送電은 建設計畫電力料金 人事一般으로부터 石炭買上까지 電氣廳의 監督下에잇서 圓滑한 營業行爲는 期待할수업다 또計畫遂行에 實施는 發送電 配電은 民間會社라는 三段階의 機構를 고치지안는限 充分한電力國家統制는 絶對不可能하다 電氣廳의 機能을 發送電에 一任하야 國家는大綱만의 監督權을 行使하던지 發送電을 國有國營으로서 大擴한 擴資總給을 行하던지 이點에關한 所信如何

東小倉子 電力國家管理의 標語라고도할만한 豐富低廉을 論하여 兩者의 倂立을 바랄수업다 今日무엇보다도 먼저 豐富히하는것이 最急務이므로 水火併發促進의 一日이라도 빨으기를 切望한다 그다음 石炭問題에이르러는 品質에 重點을두어 適正價格을 定하고 어느種類의 石炭은 價格引上을 至當하다고 생각하는데 如何 石炭價格引上이 物價에 影響되면 補助金을 交付하고 增産者에 賣하기바란다 奬勵金交付는 結果的으로 效味업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勞働力의 補給에도 萬全의 處置를取하기 바란다

米內首相 組閣以來 電力不足의 應急對策에 腐心하여 왓는데 또 恒久對策에 對하여도 고칠것은 고치고 十分硏究를 遂하여 御主旨에 副하려한다

勝遞相 一般的으로 바는 多大한 損害에對하여는 甚히遺憾이다 石炭을 多量으로 速히 集合하는以外에 方途는업다 二月六日 十五萬噸 三月 五十萬噸을 保有하여 二割制限에 努力하고잇나 調整令의 發動은 甚烈하다고생각하나 多幸히 今日까지의 入手狀況은 順調로 二十日에는 二割緩和도 實現할수 잇슬것이다 今日의 渴水狀況등으로보아 制限을 엇게할 期는 明言할수업는데 極力努力한다 電力審議會의 運用이 適當치안흐면 發電計畫도 順調로 進行되고잇다

藤原商相 石炭當業者의 協力을 어들고 手配하엿는데 [illegible] 故障으로 制限强化에 이른것은 遺憾이다 各種應急對策도 徹底的으로 效果를 볼수업서 遂하여 鐵道, 內務, 厚生, 商工, 拓務等關係各省의 連絡委員을 設하여 大阪, 兵庫, 京都, 愛知等知事를 列席시켜 對策을 硏究하엿다 이結果 遞信, 鐵道, 內務次官으로부터의 出張員을 各地로 派遣하여 相當한 效果를 보고 今日搬出狀況은 順調하다 根本對策의 石炭價格引上은 低物價政策上 不可能하지안흐므로 硏究하겟다 品質改善 規格統一에對하여도 努力한다 熟練勞働者不足에對하여서는 對策萬全을 期하고잇다 配給機構의 整備改善을하여 秘密市場의 絶滅을 期할생각이다 石炭의 應急及根本策은 一月閣議決定되엇다 [illegible]고생각하는데 一年[illegible]百萬噸

小倉氏再登壇 低物價政策의 堅持方針은 決定되엇는데 石炭配給機構의 整備는 紙上計畫을 極力避하고 곳까지 實情에 卽한 措置를 取하여주기바란다 이에對한 答辯을 어듬 十一時五十六分散會하엿다

# 金價引上問題
## 中央도必要認定
### 草間産金副社長歸任談

生産費의 昂騰에依한 産金業者의 苦境을 具陳하는同時에 金買入價格引上의 必要를 中央關係當局에 要望陳情한 朝鮮産金業會에서는 代表金鑛의 [illegible] 京城을기다려 十二日午後四時부터 理事會를 열고 [illegible]의經過報告를 行하엿다 그리고 今後도 [illegible]하여 金價引上의目的 貫徹에 邁進하기로 [illegible]하엿는데 이引上運動을 [illegible]的으로 助長하여 中央關係當局에 [illegible] 草間日本産金振興副社長은 金價引上에關한 運動의 經過와 政府와의 이에 對한 意向에對하여 다음과가치 興味잇는 談話를하엿다

自己는 中央의關係各當局에 對하여 前明的 偵察을한셈이다

一、新內閣首腦者에 産金者의 實情을 具陳한과同時에

二、關係事務當局의 金價引上에 對하여 難色을보이는 根據와 理由에 對하여 政府의 意向을 打診하엿다 內閣首腦者의 意向은 産金者의 苦境도 잘認識하고잇스나 結局議會에서 豫算案이 通過된後 硏究하여가지고 適當한方策을 講求하려고하는모양이엇다 萬一 어떤方法을 講求하게되면 追加豫算에 그關係[illegible]가 計上되[illegible]이다 關係事務當局의 意向에잇는데 이것을 綜合分析하여보면 金價引上反對의 理由로

一、低物價政策에 逆行한다

二、[illegible]金의 政府集中政策과의 矛盾을 이르킬것

三、[illegible]金制度의 實質에依하여 一旦對策이 要求되어잇는것

四、引上은 [illegible]의 膨脹이되는것 等인데 이에 對하여 自己는 다음과가튼 反對意見을 가지고잇서 이것을 關係當局에 具陳하엿다 即

一、[illegible]金制度에 對하여는 政府는 增産分에 對한 [illegible]金交付 相當히 經濟的犧牲을 하고잇되다 이에 對하여 新産金은 [illegible]으로서 經濟的 [illegible]이 안되다

二、[illegible]金集中政策의 矛盾에 對하여는 [illegible] 사람의 所有[illegible] 十二年以來 大中小金山을 通하여 增産에 努力하고 잇스므로 十四, 十五年度에 잇서 다시 增産을 [illegible]하거나 또는 이基本的金額을 維持하는것은 産業의 [illegible]으로보아서는 大幅한 [illegible]이다 [illegible]에 對하여 政府가 어떤對策을 [illegible]할것도 [illegible]이다 (政府의 [illegible]) 이點에 對하여는 매우 [illegible]을 기피하고잇다

三、[illegible] 年[illegible]의 結果 [illegible] 實施以來 內外의 經濟情勢는 一變하엿다 그러므로 物價政策도또한 [illegible]의 餘地가잇다 九・一八은 어데까지 [illegible] 方策으로서 適正價格을 만들必要가잇다 여기에서 生活必需品과 가튼것은 現在以上으로 引上하여서는 안되지만 物品에따라서는 引上도 不得已한것이잇다 金과가튼것은 海外로부터 必要物資를 輸入하는 代價이고보매 必要物資의 輸入에依하여 生産力의 擴充이 行하여지고 따라서 物資의 [illegible]도 招來하게된다 그러므로 金價引上은 決定的 物價政策의 逆行이아니다

四、通貨膨脹의 [illegible]에 增産은 徐徐히되는 結果 一時에 [illegible]되는것이아니다 [illegible] 九牛一毛에 不過하다 政府도 이點에 [illegible] 分한 認識을 가지고잇스나 金價引上의 一般에 對한 衝動이라는 精神的影響을 考慮하고잇다 그러나 이것은 國民의 氣分問題이어서 結局은 政府의 肚胸하나에 問題의 열쇠가 잇다고할것이다

# 皇運을扶翼
## 優渥하온詔書를拜하고
### 川島總裁、愛國班員에告辭

皇紀二千六百年、紀元佳節에當하여 惶恐하옵게도 優渥하옵신 詔書를 渙發하옵시어 我等皇國臣民의 嚮할바를 明示하옵신는 참으로 恐懼感激에 不堪하는바이다 伏惟컨대 我等全朝鮮二千三百萬聯盟愛國班員은 이聖旨를 奉體하고 더욱自肅自戒、恒常訓練되고잇는 皇國精神을 昂揚堅持하여 各各 그本分에 精勵하는同時에 盟誓하여 質實剛健、如何한困難도 克服하고 聖業完遂에 邁進할決意를 다시새롭게하여 心魂을 傾注하여 興亞維新의 皇運을 扶翼하여야한다.

# 軍事豫算質問에
## 小磯氏의名答辯

【東京電話同盟】齋藤氏舌禍問題 秘密會의 [illegible]件等 專門『狂言』으로거우 興味를끌고잇는 七十五議會에 十三日오래간만에 緊張한 一場面이잇섯다 어날아츰 通告로 午後豫算總會에서 午後五時부터 貴商에선 政友久原派의 牧野良三氏가 軍事豫算을 組上에노코 七十億圓이란 豫算을 何等의說明도업시 내어노하서는 어찌 달기히 審議할수잇는냐고 短刀直入으로 陸海軍大臣에 詰問한바 畑陸相 陸軍省石川經理局長이 各各서서 作戰秘密保持上 到底히 이以上 說明할수업다고 答辯하매 牧野氏 목소리를 노피어 『余는 이豫算을 非難하던가 或은 削減하려는 마음으로 質問하는것이아니다 陸軍의 意圖하는 豫算은 언제든지 何等의說明업시 提出되어 國民은 이에關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따라서 그結果 民需에 壓迫을바드면 米穀이不足하다고 不平을지긴다 國民의 總動員을 要求하려거든 먼저 詳細한 事實을 明示함이 如何 議會에서도 그리하면 달가히 豫算에 贊成하여 積極的으로 支持하여 國民總動員의 實을 나타내게되엇슬것이다 陸相이 이以上의 說明을 拒否하면 余는 그職을 가진자로서 陸相이 이戰時內閣의 閣僚로써 疑問을 다하는것인가 어떤가에 疑問을 가진다』고 말하자 議場內는 자못 緊張하엿다 그때 『議長』하고 [illegible]가 나서며 小磯拓相은 무엇을 무리지안코 것는 特徵잇는 步調로 演壇에 올러서서 『拓務大臣이 나올處이아니나 余도 軍人出身이므로 軍人的인 辯護가 아니라고 前提하고 牧野氏의 意見은 無理는업다 그러나 專門的立場에서보면 豫算說明은 곳 作戰秘密暴露가된다』고 說明하고 最後로 『그것은 牧野君도 잘아실것이다』라고하엿다 拓相의 仲裁에 應하겟다고 하자 大臣席의 米內首相 畑陸相도 고개를 끄더겨 緊張의 空氣는 一變하여 和氣한 幕이되엇다 拍手가 許諾되는 場所라면 大喝采가 되어낫슬것이다

# 府內倉庫現況

京城手形交換所調査=昨年十二月中의 京城府內倉庫貨物出入狀況은 如左하다

| | 個數 | 金額 |
|---|---|---|
| 本月入庫 | 一三六、五五七 | 八、七七七、六三三 |
| 本月出庫 | 一三六、[illegible] | 九、[illegible] |
| 月末現在 | [illegible] | 三二、一〇三六、七〇六 |

即前月末日에比하여 三千九百六十五個의減少 三百四十二萬五千圓의增加이다

# 獨伊兩巨頭連絡
## 米國務次官渡歐圍繞코

【伯林十二日發同盟】웰스米國務次官의 渡歐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고잇는데 U・P伯林支局의 報道에依하면 히틀러總統은 十二日 電話로써 뭇솔리니首相과 連絡을取하여 웰스次官의 渡歐와關聯하여 現在及將來에 獨逸의取할立場을 闡明하여 伊太利의 諒承을 求하엿다고한다 (寫眞上은 히總統 下 뭇首相)

# 英蘭新協定成立乎

【倫敦十二日發同盟】英政府는 얼마前부터 和蘭政府에對하여 戰時下에 即應할 新通商協定締結을 提議中이던바 確聞한바에 依하면 和蘭은 外國貿易獨占을 企圖하는것을 目的으로하는 英蘭戰時通商協定을 近近成立에 이르게하고잇다한다 右目的達成을爲하여 和蘭은 輸入을 全般的으로 統制하고 對獨輸出을 防止하려고 새로운 機關을 設定한다고한다

# 伊、最高國防會議續開

【羅馬十二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最近連日과가지 最高國防會議를 開催하고 歐洲戰爭의 進展에 對應할 各般의 軍事措置를 協議하고잇는데 十二日도 前日에이어 午後四時부터 最高國防會議를 開催하엿다 會議는 二時間半만인 午後六時半에 一旦散會하엿다 이會議는 十三日에 開催될터이다 近東方面의 情勢가 漸漸微妙한 動靜을 보이고잇는 이지음 伊太利政府의 連日의 國防會議는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잇다

# 對日禁輸論
## 米國內依然盛行

【華盛頓十二日發同盟】日本에對한 禁輸論은 依然 米國各方面에 不絶하는데 上院議員쇼지 노리스氏(無所屬)는 十二日 日本及蘇聯에 對하여 食料品製酒品軍需品等의 道義的禁輸를 斷行할旨를 主張하여 左와 如히 述하엿다 日本及蘇聯은 野蠻國이다 余는 兩國에 對하여 食料品製酒品 軍需品等의 道義的禁輸를 斷行할것을 主張한다 米國市民이 個人으로서 日蘇兩國의 이들商品의 買入을 中止하던가 或은 我國에 잇는 同種商品의 販賣를 中止하는것은 全혀合法的이다 이러한處置는 政府의 行動을 必要로하지안흐므로 何等非友誼的行爲는 아닐것이다 但 大統領에 對蘇對日禁輸實行의 權能을 주는데는 反對이다

# 米空軍
## 新爆擊機採用

【華盛頓十二日發同盟】米國陸空軍은 메리-24型의 新式爆擊機를 採用한旨를 十二日發表하엿다 新爆擊機의 性能은 左와如히 實로 驚異的의것이다

一、時速 四八〇킬로
一、航續力 四千八百킬로
一、搭載爆彈 四噸
一、機體 全金屬製四萬폰드
一、翼長 百十피트
一、搭乘員 九名
一、發動機 一千二百馬力四基

# 獨蘇提携益益强化
## 新通商協定遂調印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外務省當局은 十二日 獨蘇兩國間에 新通商協定의 成立을 보앗다고 非公式으로 發表하엿다 그內容은 一兩日中에 正式으로 發表될터이다 그런데 同協定은 昨年九月以來 莫斯科와 伯林에서 交涉을 繼續中의것으로 交換物資의 內容 引渡條件等에關하여 兩者間의 意見이 一致되지못하고 難航을 繼續하엿는데 約五個月만에 最近겨우 協定調印에 이르게된것이다

【莫斯科十二日發同盟】獨蘇政府는 十二日 獨蘇新通商協定成立을 發表하엿는데 이와同時에 蘇聯政府도 十二日夜 莫斯科에서 調印이되엇다고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新通商協定은 蘇聯의 原料物資와 獨逸의 工業製品과의 交換을 規定하는것으로 이미 協定第一年度의 獨蘇貿易額을 超過하게 規定되어잇다 更히 將來 이額은 一層增加될것이다

006467

# 蔣、柳州서軍事會議
## 蔣軍再建과其他를協議

【香港十二日發同盟】桂林來電에依하면 蔣介石은 七、十一兩日 柳州에 軍事會議를 開催하고 白崇禧, 陳誠, 張發奎, 桂林府以下 軍首腦部를 招集하여 今次廣西戰線의 敗北에依한 蔣軍陣營의 再建을 中心으로 다음諸問題에關하여 協議決定을하엿다고한다

一、廣西戰線에對한 援軍增派
一、戰鬪參加部隊의 人員彈藥의補給
一、後方連絡과 軍需輸送方法의改善

(寫眞은 蔣介石)

# 佛、國防會議

【巴里十二日發同盟】佛國政府는 十二日午前 佛國軍總司令部에서 戰時國防會議를 開催하엿다 右는 春期作戰의 最高方針에 關하여 協定을한것으로 보인다

# 學界最高榮譽
## 恩賜賞・學士院賞授賞者

【東京電話同盟】帝國學士院에서는 十二日 上野의 同院에서 二月例會를 開催 總會의結果 昭和十五年度 恩賜賞二名 學士院賞五名을 決定發表하엿다 學界最高의榮譽에 빗나는 八氏는

▲恩賜賞

一、能樂源流考 東京文理大助敎授 能勢朝次(東京市)

一、素粒子間의 相互作用에關한 理論的硏究及宇宙線中의 新粒子MESOTRON의 存在에關한 豫言 京都帝大理學部敎授 理學博士 湯川秀樹(西宮市)

▲帝國學士院賞

一、化學反應速度論의 理論及實驗的硏究 北海道帝大理學部敎授 理學博士 堀內壽郎(札幌市)

一、柿本人麿 靑山腦病院長醫學博士 齋藤茂吉(東京市)

一、佛文學考說 元愛知醫科大學敎授 石田元季(名古屋市)

一、兵器考 東京帝國大學名譽敎授 工學博士 有坂鉊藏(東京市)

一、鍛鍊料의 合成에關한 硏究 東京帝大工學部敎授 工學博士 牧鋭夫(東京市)

一、鑄鐵의硏究 日立製作所安來工場製作部長 理學博士 菊田多利男(島根縣安來町同工場社宅)

# 滿洲興銀總會
## 富田總裁演說要旨

【新京十二日發同盟】滿洲興業銀行에서는 十二日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第六期(康德六年下半期) 決算及配當年六分据置를 決定하엿다 同總會에잇서서의 富田總裁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昨年中에잇서서의 農作物收穫高는 大豆四百五萬噸, 高粱四百五十六萬噸, 粟三百五十三萬噸 其他總量一千八百十一萬噸으로서 近時 食糧問題의 重大化에伴한 産業五個年計畫中 農業部門計畫의一部를 擴大하여 米, 小麥, 高粱, 玉蜀黍等의 增産計畫을 하기로되엇다 昨年中의 貿易額은 輸出八億二千六百萬圓, 輸入十七億八千三百萬圓에 達하여 結局 九億五千七百萬圓이라는 未曾有의 輸入超過로서 前年에 比하여 輸出은 一億圓, 輸入은 五億八千萬圓의 激增을보여 國內各産業의 進捗을 顯著히한것이잇다 對日貿易은 輸出五億一千七百萬圓 輸入十五億五百萬圓 入超九億八千八百萬圓으로서 前年에比하여 輸出은 二億圓, 輸入은 五億一千八百萬圓의 各其增加이엇다

# 南總督快差
## 十四日登廳

南總督은 其間 感氣로因하여 靜養中이던바 快差하여 十四日부터 登廳할터이다 따라서 十三日의 定例局長會議는 十四日로 延期하엿다

## 人事・集會

▲水野錬雄氏(總督府産金課長) 産金懇談會出席次 十四日午後四時三十分 京城驛發 海州에出張 十六日歸任豫定

▲吉川元次郎氏(慶州警察署長) 榮轉人事次 十三日來社

▲佐藤忠一氏(京畿道警察部保安課勤務) 同上

## 八面鋒

島田農相、一億石食糧確保를 壯談한翌日에 그러라고 安心은 말라고 발빼기。

◇

安心못할 確保兼答은 農相이아니라도 세울수잇슬터이데。

◇

內地米價維持를爲한 外地米移米制限을 撤廢。

◇

有無相通은 可이나、甘吞苦吐式은 不可。

◇

英府駐在 英佛大使館 撤退를 準備하는듯하다지。

◇

獨逸은侵略이되 蘇聯은侵略이아니라는 英佛의 原態理論에 異狀이생겻나。

◇

芬蘭을 武力援助할 良心이라도 생겻는가。

◇

戰爭은 最後까지 繼續하겟다고 芬蘭外相이 絶叫。

◇

言則壯也나 엇냐 體小한지라!

呼吸器補強! 世界的强壯劑
ネオトン
全國有名藥房販賣店

頭痛・上氣・眩暈에 一步前進한頭痛藥
テリーン テリーン
本舖 京城中村書治商店

朝報案內
男子早漏 性的神經衰弱 早漏陰萎에 效잇는 新用藥 大阪南區上本町二丁目 大學藥院

事務員採用
初任月給四十圓 自己居住하는地方에서 勤務 希望者는 二錢切手와 履歷書를 平壤府寬仁通 保險堂

幹部社員募集
金融機關ノ地區在幹部社員多數募集ス 希望者ハ履歷書送付サレタシ
京城府鍾路永保ビル 日清生命保險會社

寫眞學術講習生募集
晝間部、夜間部共히 十六才以上 男子小學校卒業程度 規則書는 三錢切手封入請求次第發送함
釜山府草梁町五三二番地 公認 釜山寫眞學術講習會

住宅地分讓處分
正月十日부터 一個月間
風致佳絶市內最近 別莊地台理想的新住宅地
道路、水道、其他工事施設許可濟
場所 帝大理工學部裏東側稜山下 東崇町二〇一番地 內總坪數五五四坪
交通便利 大學前停留所까지 徒步四分間
坪當六五圓以上七〇圓
東崇町二〇一ノ二五 新興建築社

幹部社員招聘
一、幹部社員若干名(但二年以上斯業經驗者)
一、一般社員若干名(但實債を以って指導す)
希望者は左記へ履歷書送付又は面談のこ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三 愛國生命京城支部 長 春岡宇植

KEIJ YOSINYA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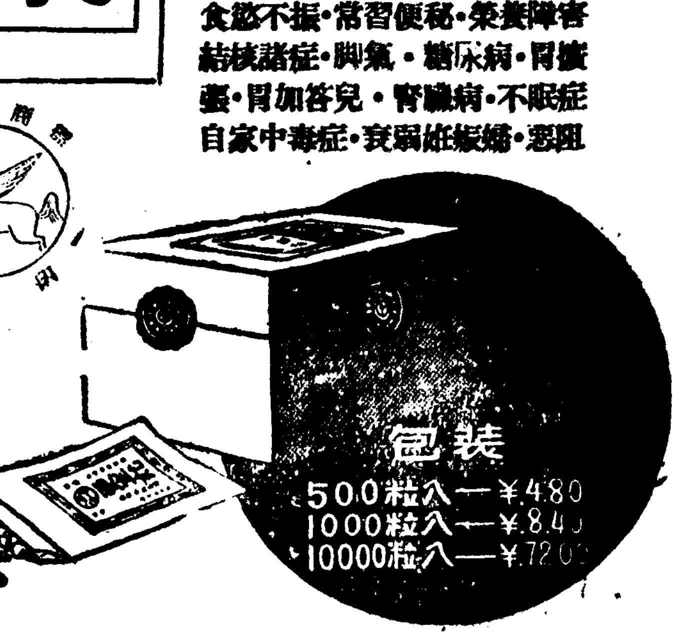
劇團高協 西北鮮公演

| | | |
|---|---|---|
| 開城 | 開城座 | 二月八日九日十日(舊正月一日) |
| 沙里院 | 共樂館 | 十一日 |
| 平壤 | 金千代座 | 十二、十三、十四日 |
| 鎭南浦 | [illegible]樂館 | 十五日(晝夜) |
| 沙里院 | 共樂館 | 十六日 |
| (車中) | | 十七日 |
| 鐵原 | 鐵原劇場 | 十八日、十九日 |
| 元山 | 元山館 | 二十日、二十一日 |
| 咸興 | 明寶劇場 | 二十二日(舊正月十五日)(晝夜二回) 二十三日 |
| 端川 | 端川劇場 | 二十四日、二十五日 |
| 城津 | 遊聚座 | 二十六日、二十七日 |
| 淸津 | 共樂館 | 二十八日、二十九日 |
| 會寧 | 會寧劇場 | 三月一日、二日、三日 |
| (車中) | | 四日 |
| 龍井 | 龍井劇場 | 五日、六日 |
| 延吉 | 新富座 | 七日、八日 |
| 圖們 | 圖們劇場 | 九日、十日 |

柳致眞作(朝鮮日報連載) 春香傳 五幕七場
朴英鎬作(文章所載) [illegible] 三幕

世界的靈藥高麗人蔘主劑品
補強 血壯 更生丸

適應症
貧血・神經衰弱・消化不良
食慾不振・常習便秘・榮養障害
結核諸症・脚氣・糖尿病・胃擴張
胃加答兒・腎臟病・不眠症
自家中毒症・衰弱姙娠婦・惡阻



包裝
500粒入—¥4.80
1000粒入—¥8.40
10000粒入—¥72.00

發賣元 京城新藥社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番地 電話光四六二 振替京城二二七二番

更生丸愛用者招待會
招待方法
當地有名藥房에서 更生丸買上하시는분께 招待券을進呈합니다

# 積雪、停電、故障續出로 市內交通網大混亂

## 各官廳、會社、學校에는晩到者沙汰!

십이일밤부터 중부조선지방에는 비석긴눈이 강한바람을몰고 퍼부어서 이때문에 장진강(長津江)수력전기의 송전선이고장을 이르켜서 전력이 잘트리오지안는데다가 비석긴눈이 전차길을 더퍼버려 오정까지에 『펜더-』에고장을이르켜서 운전불능에 빠진전차가 사십여대에달하엿다 더구나 길이붐시 미끄러워서 전차가나가더래도 속력을 내일수가업서서 아침 『러쉬·아워-』에 수송능력이 반감되어 학교와 관청에서는 모두가 대량만도자를 내여경전당국에서는 부득이 각중요관청회사와 학교에 팔목(八目)운수과장이 일일히 전화를걸고 정중히사죄를하는등법석을 첫다

도중앙전화국에서는 전기한바와가치 송전선고장으로 전화불통이 오정까지에 삼백여건이

## 人夫二百名出動 除雪作業

진눈이 세치이상이나 싸히엿게로 전차의진행에 지장이잇기때문에 경성전기회사에서는 인부이백여명을 동원시켜 제설작업(除雪作業)에 분망중이다

# 清涼里線大雜踏!

## 大學豫科、普成專門、高商等通學生大部分이遲刻

십삼일아침 눈때문에 시내전차운전에 고장이 만히생기기때문에 은행 회사 관청원들이며 각학교생들이 지각을하며 대혼잡을이르킨중 특히 아침처녀은 암전히 학생들의 통학전차가되는 청량리선(淸涼里線)은 더한층 혼란을이르켯다 즉 청량리방면에는 대학예과를 비롯하여 법학전문 고등상업 보성전문 경성상업 여자사범 동덕고등여학교등 아침시간이면 수천학생이 동원되어 평소에도 혼잡하던것이 이날은 종로에 전차가 고장까지 이르키게되어 전차를기다리다못해 모두 걸어가게되든등 혼잡은 여간 아니엇다 이때문에 학교마다 학생들이 대부분지각을 하게된터인데 심한예로는 대학예과에서는 오백이십명의 학생중 약백명을 제한외는 서넛까지 거의지각을하여 아홉시반상학할것을 삼십분간꾸어서 상학하게까지되엿섯다 대개이모양으로 청량리선의 각학교는 지각학생과 선생이만허저 지안흔 지장이잇섯다

고 일심판결대로 미죄판결을내렷다

## 奇特한列車手

기특한열차수=신이일안태(安宅)경성철도사무소장에게 함경북도무산철산에 광부로잇는 김기복(金日福)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일원구십전을 편지에너허서 감사하다는 편지한장이전달되엇다 그내용을보면 김기복씨의큰어머니는 어린손자를 데리고 작년십이월십칠일밤에 대전으로부터 무산철산으로가든중나진으로도 가는삼배열차에서 차장이차표를 조사해본즉 어떠케된셈인지대전으로부터 리원(利原)철산까지 가는차표를 가젓슴으로주머니에돈한푼도업섯다 그때한사정을 본분수 조규청(曹奎淸)군이자기가 가젓돈으로서 부족되는차삭과 변도갑을합하여 일원유십유전을 꾸어주어서 무사히목적지까지가게한 고마운일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쓰여잇섯다 이편지를바든 철도사무소장도 그기특한일에 대하여 자못감격하고잇다

# 非取引所會員의 取引行爲는無効

## 高等法院의新判例

취인소회원이 아니면서 회원의 명의를빌어가지고 매매와위탁을하는 사람에게 철퇴를내리는 신판례가 십이일 경성고등법원에서도변(渡邊)재판장으로부터내렷다

이 신판례를내인 사건의내용은 이러하다원고경남진주부금정선안(鄭善臣)의 남편가내창(鄭大昌)이 소화십이년십일월일 대구에서 전부터 취인소회원이모(李某)의이름을 빌어써 오던피고 대구부경정(大邱府京町)이정복 서병원(徐丙元)에게 취인위탁을할때 자기안해인 원고의 명의로 채용증서를쓰고 구백원을 빌엇는데 그담보로써안해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엿던것이 그후 그토지가 경매에떠러저 피고가 제이순위저당권자로써 배당을밧게된데 대하여 원고는 전번차용증서에 남편의 동의서가업스니 저당권설정도 무효하다하여 이에 배당이의(異議)청구를 제소하여 이래 계쟁중이던것이다

그것이 이번상고심에서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동시에 원심파가치 취인소회원아닌 사람이 회원의명의를 빌어 취인상의 매매나 위탁행위를 하는것은 공공한질서에 벗어나는 탈법행위로도 이것은 아무 법적효력이업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한 대차계약과 저당권설정은 모두 무효하다는 판결을내려 『취인소회원아닌 사람의 취인소에서의 행위의효력』에 대한 신판례로채택하엿다

## 養子殺害未遂한 寡婦에無罪言渡

울혼한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양자의밥에 양재물을 너허먹엿다하여 오년이의 구형을바든엿파부 청진부신암정(淸津府新岩町)칠십구번지 김원순(金元順)(三七)에관한 살인미수피고사건의 이심언도공판은 십삼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려 평강(平岡)검사 관여아래 시본(矢本)재판장으로부터 증거가 불충분하다

## 人道敎事件求刑

### 首謀者秦에一年役

사교 인도교(人道敎)에 관한 보안법위반, 사기, 횡령피고사건의 제이회공판은 십삼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부옥(釜屋)재판장주심, 삼본(杉本)검사입회아래열려 검사론고가 다음과가치 최고양년식의 구형이잇섯다 그런데 판결언도는 오는이십일이다

◇秦慶大 一年懲役 ◇金重龍 李相承 金正極 各懲役十個月

다

## 油類暴利事件

### 支那人檢擧取調

십삼일본정서경제계에서는 부내북미창정(北米倉町)일백이십이번지 화흥공기상점(和興公記商店)주인 곡금산(曲錦山)(三二)을불러다가 『구·잉크』 가격위반으로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은 다음과가다

즉 그는지난이월이십오일대전춘일정(春日町)일정목 박연달(朴淵達)을통하여 전남러수로부터 백교유(白絞油)이백여원등을 이천오백오십원에사다가 이백원의부당이득을 보것인데 지나인의통제령위반으로 경찰에적발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니만치그결과가 주목되고잇

## 竊盜二名逮捕

충북옥천군안일면일외리 (沃川郡安日面日外里)전과이범 김산동(金三龍)(二三)과 청주군부용면부강리 동범 김가봉(金佳鳳)은 지난일월순간 서대문형무소를 나올때 도다시 도적질을하여 돈버리를하자고 약속하고 나오던길로 부내신설정(新設町)거리우에서 자전거한대를훔친것을 비롯하여 구두잡화등 오백여원어치를훔치고 십이일밤 서대문서안(安)형사에게 붙들리엇다

## 氷上選手權大會後記 ❶

氷聯 張日弘

斯界年來의 要望이던 本大會는 紀元二千六百年을 記念하여 氷聯主催로 스피一드 氷上하키 피一규어等 三部門의 綜合的組織下에 企劃되어 七, 十一日에 淸涼里링크에서 開催되엇섯는데 그主旨가 斯技의發達을 企圖함이요 正統的訓練의 唯一한方法이되어組織形態의 活用이 今後斯界發展을 爲하여 寄興할바不少할것을 所信하는바이다。從來 朝鮮에잇서서의競技大會實施企劃이三部門으로分散兩離되엇던것과 競技方法이 變態的長距離가全部오픈레一스)이엇던것이그얼마나 技術의 發展助長을阻害하는 素因이엇섯던가하고 再三反省할때 競技實施의 變態的影響이 不知不識間에 今日의朝鮮氷上界의 影響을 招來함이라고아니할가 今씨一슨에 이르러 顯著하엿다고생각한다。

幻稚한選手 未熟한 技術의段階를 一層助長하려면은 一般的으로 正統的訓練方法이 科學的根據에 立脚하여야할것이다。그래야만 發展이 順調로 進展될것이다。時局的制約을 口實로蹉跎的方法을 取하여 今日에이르럿다고하면 從來指導者의 責任을 決코 輕忽할것이 아니라 이러한 危機에直面한 氷上界를 救濟하는 一策으로 歐洲選手濫貫施方法 그대도 本大會를 始作하엿다고하여도 過言이 안이라고할것이다。그래서 本大會의內容은 決코 貧弱한것이엇섯다고 볼다。그래서 綜合選手權 戰績을固執하며私見을述하려고한다。

期日이 臨迫하여 暖氣가 襲來하여서 選手交體會期日에는 來日의 大會조차 憂慮되엇슨데 豫定을 全部變更하여 十日午前九時男子五百米레一스부터 開始되엇는데 氷質은 前日의 暖氣의影響으로 因하여 選手들은 全般的으로 緊張된 局面로 여러가지 悲觀을 克服하여李季恒君은二千米에五分二十一秒五의朝鮮新記錄을 大會를 一層빗나게하여주엇다。

◇男子五百米

男子五百米에는 氷質의條件으로 스트레트 힐 스케一터一의 敗因을 實證하여주엇다。

優勝의洪鍾鎬君은 當日 ……의 피치로 全距離를 一가하고 同君이曲線路走法이 欠陷이던것도 ……多少是正이되엇스며 ……하여야할것을附言한다 …… (계속)

## 法律을몰라서 당치안흔悲劇을惹起

一에서十까지 法律에關係치안호면아니될世上!最近東京中野區小松山目規議員에 一東京出版社에서 律의日常相談知識이라는 難問題가解決되는일즉운 法律書가發表되엇는데 一般素人에게는 絶好의趣談相對이다。同書는 從來의 어려운法律書와달러서 實際問題를取扱한것으로 金錢의貸借는勿論, 民事, 商法, 土地, 家屋, 結婚, 相續, 戶籍等의難問題와 누구던지알어야할 刑法上의知識까지꼿解決되는 至極便利한것으로 同書一冊만잇스면 辯護士無用이다。그러고 同書는總頁四百頁定價二圓인데 特價一圓二十錢으로 特賣하고잇다。希望者는前記東京出版社에葉書로申込하면 곳送本한다代金後拂本鋪

廣告

# 經濟警察再編成計畫

## 從來의溫情主義一擲今後는嚴罰主義로

## 新年度에도專任警官大增員

전시저물가(低物價)정책을 비롯하여 여러통제경제를 수행함에 가장중요한 제일선부대인경제경찰진용은 이달초생부터 총독부에서 그정비에 전력을다하여오던바 십이일까지 총독부이하 전조선십이도(경기도는 이미설치)에 경제경찰과(經警課)설치를 일단하엿스므로 조선경제경찰의 중앙총본영과 지방총본영은 드디어 완성되엇다

이와가튼 각지방의 경제경찰본영에서 활약할순사는 제이예비금지출로써 지난일월에 이미 오백명을 각도에배치 하엿스나 이것만가지고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부족한바 잇스므로 소화십오년도에는 총독부 경제경찰과 사무관한명을 비롯하여 경부이하 약오백삼십명의 경제경찰관을 대증원하여 조선경제경찰의 철벽진을 완성하기로되엇다

이에압서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오는이십칠일붓터 총독부제이회의실에서 이번에 신설된 각도경제경찰과장회의를 개최하고 마침내 완성된 경제경찰판의 운용에 대하여 난상협의한후 조선늘까 기타 통제취체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기로되엇다

즉소화십삼년부터 경제경찰제도실시이래 경제사범이 이미이만건을돌파하엿스나 과거의방침은 이제도실시가처음인 관계도 잇고해서 감시 경고등 온정주의로나가 와서 위반자중 체형된사람은겨우몇명에불과하여 극히관령이엇는데도 늣김이잇섯다 그러나 이제는 각도에경제경찰과도 전부신설되엇고 또 언제까지든지 이와가튼 온정주의로만 나갈수도 업슬뿐아니라 신오년도에는 경제검사도 근이십명이 증원되어서 경제에관한 경찰진용과 검찰진용이 아울러 그정비를 보게되엇스므로 금후로는 과거의 온정주의를 단연폐기하고 적발엄벌주의로 나가서 극히 완만하고 탄력업는듯한 현재의 경제경찰을 주엄하고 엄중한 경제경찰로 재편성하려는것이다

## 쌀겨詐欺로 道義的處罰

법이어당해고사목 펴는교회지는메ー부내 평동정(平洞町)십오번지 미곡무역상 이병국(李炳國)은 이지만 쌀거래전문으로 팔고잇는데 쌀겨는 한섬이 백근에 칠원밧게 밧지못하나 쌀겨닷섬에 일원칠십전짜리 석회한섬을 석그면 한섬이 일백오십근이나되어 삼원칠십이나 바들수잇스므로 작년삼월부터 지금까지 광천가마에 근만원이나 부정한 이익을남긴것이 서대문경제계에 들어낫는데 경제경찰범규모로보아서는 꿋꿋하지가어려우나 도의상으로보아 용서하지 못할간게이므로 사기죄로라도 처단하겟다고한다

## 元町에失家兒

# 多島海의産金開發

## 理研에서今春부터本格的作業

〃바다의금산〃으로소문이자자하던 전남다도해(多島海)일대가 드디어 총독부의산금오개년계획 제삼년째인 신년도를 마지하여 본격적으로 개발되게되엇는데 요지음 전라남도에서열린 산금간담회(産金懇談會)에출석하던길에 그곳을살피고온 총독부곡야산금과장(木野産金課長)은 다음과가치 대단히유망한남구라는것을말하엿다

다도해일대는 이미이연(理研)〃권제는〃에서 이백여광구를출원하고 벌써개발작업에 착수하여잇는데 언제(堰堤)까지 건너막고 바다물을 막어가며 손으로 금을캐내기 시작하고잇는데 오는사월부터는〃드래ー저〃(採金船)또는 이연식채광기(理研式探鑛機)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채굴할준비를 밥비하고잇는 이연〃권제는〃의 재력과기술이면넉넉히 모든곤난을 정복하고 상당한성적을 낼것으로밋는다 총독부당국으로서도 설비에드는자재(資材)에 대하여서는 극력알선할터이엇이다

## 紀元節祝賀式

## 水原에痘患者

## 氣象特報

【總督府氣象臺京城出張所發表】午前九時二十分 全鮮 北東風이强하게불며 눈이올터이다

# 麥作엔生命水

## 火災도豫防하고疾病도退治하는

## 今冬初有의부푼雪衣

### 多量을豫想 鎌田氏談

# 東海에怪艦

## 慶州郡甘浦近海上을通過 當局行方을嚴探中

십일오후네시반경에 경북경주군감포(慶州郡甘浦)에서 오리쯤되는 해상에국적불명의 괴이한 마스트한두개잇는 군함이 남쪽으로부터 동북쪽으로 달리고 잇는것을 부근주재소에서 발견하고 부근각경찰서에 수배하야 행방을엄탐중이다

## 漢南町에僵死

## 色鉛筆

內科 神經科專門 李重澈醫院
主治醫 醫學博士 李重澈
世專醫學士 南命錫
入院完備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 電話光化門②二二四〇番

切封日四十
日活京都大作 義士外傳 忠僕直助
日本武士道精神の眞髄を描く
市川正二郎 尾上菊太郎 香住佐代子 常盤操子
日活多摩川スタッフ總出演
佛蘭西ゴーモン映畫社超特作品 居酒屋
原作 エミール・ゾラ
黄金座

綠旗日本文化硏究所編
誰にもわかる氏の解說
大評判!飛ぶやうな賣行!!
定價二十錢(送料三錢)
發行 綠旗聯盟
發賣 東都書籍出張所

松の實ミルクキャラメル 京城菓子株式會社

生徒募集 公認 東亞自動車學院
奉天商埠地三經路八緯路一四六號 電話二一二四七九番

京城英彰學校生徒募集
夜間 中等科第一學年五十名

宣川 保聖女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生約百名 出願期限三月十六日
考查期日三月二十五日부터四日間

官認 京城高等簿記學院 第五十三回生徒募集

官認 京城中等專修學院 第八回生徒募集

태평레코ー드
流行歌
南陽의눈물 羅星麗
白年雪 (八六六五)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 京城支店
紀元二千六百年記念 貯蓄債券賣出シ
今日より豫約 一賣値十圓

セキナール
鎭咳祛痰特效劑

補參茸 補陰強壯 補陽水
高貴한芳香! 新鮮한味覺! 神秘한藥效!
製造元 天一製藥株式會社

# 新"小說"의"擡頭" (八)

續新文學史

林 和

**1、李人稙과 그의 作品**

新小說作家中의 먼저 손꼽을 사람은 李人稙이다. 號는 菊初요 江原道 江陵出身으로 光武十年頃에 年齡가 四十에 각가웟다 하니(崔瓚植氏談) 明治三三年頃에 出生한 일듯하다. 開化運動關係로 東京에 亡命한 일도 잇고 그곳에서 [illegible] 안코 左右間 그가 光武末年에 歸京하야 [illegible]의 主筆로서 記者生活을 시작하면서 小說創作에 붓을 든것은 事實이다. 그것이 前述한 바와가치 處女作 『雉岳山』이요 그다음 作品이 아마 [illegible] 一年十月로 刊行年月이 되어잇는 『銀世界』일것이며 그다음이 『血의 淚』(後에 『牧丹峰』으로 改題) 그다음이 明治四十五年二月로 發行日字가 된 『鬼의 聲』일것이며 最後의 作品이 大正初年에 每日申報에 실녓다가 中斷된 『白鷺洲江上村』일것이다.

그외作品은 未詳이나 그는 小說外에 [illegible] 그가 關係하면 [illegible] 每日申報等에 多數한 社說을 썻스며 [illegible] 한 [illegible] 을보면 [illegible] 年齡에 [illegible] 文을 [illegible] 보아 [illegible] 新聞記者로서 또는 [illegible] 의 [illegible]

[illegible] 을 가젓던것을 짐작할수잇다. 그 [illegible] 小說作家가 다 그 [illegible] 相當히 [illegible] 新學問을 加味한것이엇다.

그런데 李人稙의 [illegible] 그가 實 그中 興味잇는것은 그가 朝鮮에잇서서 새로운 演劇을 輸入 乃至 創作한 一人者이엇다는 點이다. 朝鮮에는 新劇이 輸入되기 前 所謂 唱劇 [illegible] 新演劇의 幕이 열리기는 圓覺社(現在 [illegible] 門前)의 舞臺에서 잇섯는데 그舞台에 脚本을 提供하고 演出을 指導한 사람이 李人稙이다. 金台俊氏의 『朝鮮小說史』와 金在喆氏의 『朝鮮演劇史』에 依하면 李人稙이 日本明治年間에 有名한 政治小說 『雪中梅』와 自己의 小說 『銀世界』『金玉均事件』(아 [illegible]

[illegible] 九〇九年(隆熙三年, 明治四十二年)이엇다 한다. 이것을 보면 新劇運動이 거의 時代를 가치하여 出現한것을 알수 잇스며, 또한 그것이 모두 李人稙 一人의 勞力에 依하엿슴을 볼때 그의 文化史的 功勞가 實로 莫大함을 [illegible] 할수잇다.

그러나 李人稙의 新小說作家로서의 [illegible] 文化人이 [illegible] 그의 [illegible] 朝鮮의 [illegible]

[illegible] 李人稙의 政治家로서의 生活은 [illegible] 李完用과 [illegible] 李人稙이 [illegible] 李人稙은 [illegible] 伊藤統監과 李 [illegible]

[illegible] 이와의 사이에서 [illegible] 政治的인 [illegible] 李人稙의 [illegible] 『血의 淚』 그他의 小說에 [illegible] 그의 [illegible] 그러나 [illegible] 日申報에 [illegible] 文學者의 [illegible] 이 事實은 [illegible] 興味잇는 點이다.

## 新世代와 新進作家 (3)

# 作品과 作家의 厚薄

鄭 義 浩

前記는 作品에比하여 鄭飛石氏의 『三代』와 金東里氏의 『黃土記』는 作品이 『倫理』를가지고저햇다는點에서 注意를 끈다.

『三代』는 舊韓國末에 高官으로 잇던 『아버진』와 唯物史觀의 信奉者이엇다가 지금은 時代의 激流에 當面해 苦悶하는 『經世』와 主人公인 『亭世』라는 大學生의 세 人物로써 三世代를 表現코저한듯하다. 그러나 하나의 世代를 代表하는 人物로서의 『아버진』는 이作品에선 오직 處處에 간단한 作者의 註釋的 說明이잇슬뿐 小說속의 人物로써 描寫되어잇지못하다. 故로 이 小說은 『經世』와 『亭世』의 두世代를 表現코저하는 『二代』이라함이 더 適當한것일지도 모른다.

**前 世**

代가 世代的 前線에서 물너서자 新世代이면서 아직도 『新世代』를 두렷이 概括하여 區劃지울수잇는 『支柱』 미테 統一되어잇지못하다는 指摘을 맛고잇는 今日, 前世代를 批判하고 新世代의 生의 態度를 보여줄려고한 이 『三代』는 우리의 關心을 끌지 안을수업다. 勿論 우리는 『亭世』에게서 우리들 新世代가 如何히 具現되어잇다고 生覺할 根據도 업고 또 우리의 前世代가 『經世』로써 表現되어잇는 그것과 갓다고 認定할必要도 업슬게다. 그러나 『亭世』的인 前世代 또는 『經世』的인 新世代인것도 確實히 一部的 眞實의 面貌임에 어김업는것이 아닐까 한다. (筆者는 『三代』를 읽으며 白鐵氏의 『展望』을 連想햇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三代』에서 興味가 깁게 느껴진것은 『亭世』를 取扱한 이 作家의 態度가 곳 『原理』업는 新世代作家一般의 人間理解의 『平原性』을 露出한 조흔 證左가 아닐까 하는 點이다. 『亭世』는 『現在』라는 주어진바 事實을 肯定하고 그

**現 實**

에 忠實하는 行動世界를 擺擱한다. 이것은 어느 意味로보아 現代를 살어 헤처나가는 젊은 世代의 한 努力性의 一顯現으로서 무수업는것이 아니다. 그러나 現實에의 肯定과 忠實이란것은 한번 『生活者』의 謙虛와 誠實로부터 離脫될때 그것은 오직 阿諛이고 하나의 虛勢에 지나지 못한다. 『亭世』가 自己의 信念에 懷疑를 품어 實로 最大의 人間的 苦悶을 經驗 [illegible]

[illegible] 함을보고 『경멸』하고 『구한한재미』와 『客미』를 느낀다. 이렇든 시人間性의 深刻한것에 對하여 淺薄한 理解바게못가지는 主人公이 [illegible] 을보고 『征服의 美』에 醉하고 『行動』의 世界를 憧憬하 [illegible]

[illegible] 人公이 우리에게보혀주는것은 [illegible] 만 아니라 이作品이—作品의 背後의 精神(그것은 곳 全人格的作家自身이다)이 또한 이를 克服치못햇다는곳에 우리는 기픈 關心과 아울러 支柱업는 新世代의 不幸을 볼수잇지안흔가한다.

作中의 主人公이 淺薄할때에도 作品의 精神 또는 作家는 얼마든지 深遂하고 重厚할수잇는것이고 主人公의 입은 『이건 惡이라』 할때에도 作品의 精神 또는 作家는 『이건 善이다』 하고 主張할수잇는것이다 그럼으로 小說에 잇서서 主人公其他의 人物은 [illegible]

**輕 薄**

性과 平凡性 은 오로지 이作品의 主 [illegible] 이러한 觀念의 가아니나 [illegible] 하다 的 [illegible] 을 [illegible] 雄的인것으로 『北支行』의 決心을 어떤 英 [illegible] 文理 [illegible] 에 나타게 하기도하고 或은 漠 어 成은 [illegible] 의 처음으로

[illegible] 하고 解決을 要하엿든 [illegible] 作品은 各其의 人物과 事件을 [illegible] 하는 全體系에 잇서서 스스로 批判하고 스스로 解決하는바가 업스면 안될 것이다 作品이 全體系에 潛在해잇는 精神으로서 主人公과 別個한 批判과 解決을 提示하지못하는限 作品의 精神 및 作家는 그 作品속의 主人公과 同一한 [illegible] 바 [illegible] 하는것이 아닐까. 이 點에 關해서 [illegible] 作品世界의 三次元과 四次元』이란 題下에 [illegible] 『藝術』에 對해서 紙面이 적어 [illegible] 가지고저한다) 젓스나 自己의 生存가 그냥

**課 業**

未來는 바라 잇는것이 못되는것은 [illegible] 하나 그러라고 [illegible] 一 태와 [illegible] 을 [illegible] 하는것을 承認할수업서하는 藝術에 는 小學校教師의 境遇를 取扱한모 처럼의 조혼 『테—마』를 가진이 作品도 結局焦點이 不分明해진것으 [illegible] 라고 생각된다.

## 短詩論

# 最小限의 美學 (四)

金 在 根

**短**

篇의 價値란는것은 時間上關係보다 이런한데 더잇슬것이 [illegible]

일즉 『에드가·아란·포—』가 그의 『詩의 原理』에서 詩는 短篇이래야 된다고햇다. 感動은 一瞬間的의 것이므로 詩라는것도 一瞬間의 感動을 表現할것이니까 長篇이될수는 업다고한다 『포—』의 『詩의 原理』는 紹介된 일도잇스므로 簡單히 重要한데를 말하면 『詩라는것은 靈을 昂揚해서 刺戟하는 것이므로 詩가 그일종을 바든價値가 잇는것은 더 刺戟할 必要가 업는 일이다 詩의 價値는 이 刺戟을 昂揚하는 比率에잇다. 그러나 刺戟이라는 것은 總체서 心理的 必然으로 一時的인것이다. 한時간 完全히 詩라고 불리우게될 刺戟의 程度는 평장하게 긴 作品을 通해서 持續될수는업다. 最上으로 半時間만 經過하면 刺戟은 식어서 엽서지고 激情은 사라진다 그때면

**詩**

는 벌서 效果에잇서도 事實에잇서도 詩가아니다.』 여기에 서도 아는바와 가치 긴 詩라는말은 單純히 言語의 明白한 矛盾이될것이다. 『포—』가 말하는 [illegible]

[illegible] 組織的構成에잇서서 [illegible] 히 應用되는 限에서는 感覺的 印象을 必要로 하는 先入觀念이 잇스므로 長篇詩라는것은 不可能한것이다 感激이 廣範圍의 感動에가지 각색의것을 갓다주는데 대하여 그 本來의 理論이 『이마지스트』의 新人들의 實作品에 誘導되는것이다 長篇詩도 [illegible] 確實히 散漫하고 解釋的인것이되고만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心**

理的 變化의 利益을가젓다 『이마지스트』 詩人들의 持論이엇다 [illegible] 言語는 最小限의 『이메지』로 詩에잇서서 最大의 效果를 내일것을 말함이다 最小限의 『이메지』로 最大限의 價値를 내어야 할것이다. 短詩이것이다.

近代人의 神經이 란 것은 至極히 銳敏해젓다 그럼으로도 最小限의 美學에 依해서 完成할수잇슬것이다 銳敏한 讀者는 『코로—』의 『스마—트』한 短詩속에서 이 조그만한 詩人의 深刻한 厭世觀을 알어내일것이다.

[illegible] 純粹한 感動을 本位로하는것이다. 이러한 神經中心의 생각은 事實에잇서서는 풀리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解釋的 敍述的 說明本位인 그리고 敍述的인 事實을 어째버리면 『이마지스트』 詩人들에게 『短詩』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有利한것이 다. 이것은 先入觀念을 支持하는 便利한 獨斷을 주는것이다. 詩의 絕對를 探求해서 『이마지스트』 詩人들과 또 그 後繼者들도 長篇詩의 構成에잇서서의 第一重要한 原理를 無視햇다. 다시말하면 새로운 詩에 잇서서는 多數의 槪念의 統一은 感動的 點度의 變化 對照에 依해서 도 음이되엿다 모든 傳統的長篇詩의 [illegible]

**歌**

[illegible] 에 依해서 『이마지스트』 들 詩人들의 새로운 式이라는것은 內容이라든지 形式이라든지에잇서서 日本式의 俳句 [illegible] 短歌(Tanka)와 米利加의 西歐의 俳句(Haiku)나 短歌(Tanka)나 歐米의 이러케 俳句나 短歌나 支那의 漢詩의 影響을 바르면 잘 알려진일이다. 『이마지스트』는 詩人들의 詩란 [illegible] 에잇서는 우에말한바와가치 東洋의 影響이 만타. 여기에 말하는 短詩라는것은 勿論 [illegible] 이다. 가장 純粹한 『이마지스트』 詩人들의 詩作에는 大行以內도 되는것이 만타. 그러나 그것을 古典的 英國式의 詩는아니다. 多少 古典的影響이 업는것은아니지만 俳句와가 치 精神的이고 印象的인것이다. 俳句라는것은 우리가 잘아는 바와가치 十七字로되는 短詩이다.

이러한 俳句나 短歌의 影響을 바든 短詩는 세가지로 分析해 볼수잇다 첫재는 實의 敍述에서 排定되는 感動이고 셋재는 一種 形而上의 比喩이다.

**鑑**

實이라는것이다 첫재로는 事實의 敍述 [illegible] 『코로—』는 이러한 短詩를 最小限의 美學이라고해서 論햇다 最 [illegible]

米國의現代美術…② "明日과明日"
프랜차—마—린—作

## 旅行隨感

# 車 窓 (三)

李 敬 河

물속 바로 외인편 창미테서 바다가 열린다.

『아름다운 바다요』

『오오 참말로요』

瞬間 視線이 마조친다. 놀라움에 찬 『마드모와젤·主』의 눈이 몹시 아름답다.

내 마음은 한瞬間 그의 새로운 位置에 感慨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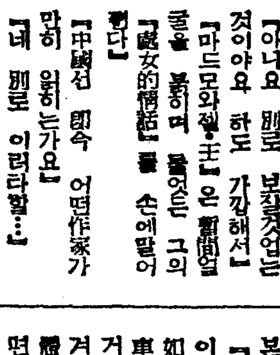
그러나 내 咏嘆만은 至極히 自然스러운것이엇스며 『마드모와젤·主』의 共鳴 亦至極히 率直하고 素白한것이엇다.

[illegible] 이 넘치는곳에 咏嘆이 따르는것은 人情의 自然함에서 나오는것이요. 또는 아름다운것은 아름답다고 소리를 發하여 더욱 아름다워지고 아름답다고 共感하는 사람이 잇서 한層 더 아름답게 느겨지는것일까. 그러다면 論理는 또 더 아름다운것은 아름답다고 共感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異性일적에 至上 아름다운것이된다는데까지 다다르고야 마는것일까.

·이것은 何如튼 바다는 卽 수 푸른 하늘을 안고 지중빗—지중이 『손가락을 담그면 물드릿다』 한것도 이 過言이 아닐까— 참말로 깨끗하고 아름답게 뵈인다 바다가 다하는곳 멀리는 가느다란 水平線 용기종기한 섬이요 가차이 바로 [illegible] 검푸른 [illegible] 드려서는것은 閑靜한 砂濱이다.

온 바위 바위 불숙 가끕서 바다를 威脅하고잇는 斷崖—그우에 섯는 한두그루의 솔은 또 그림가치 아름답고 손을 뻐치면 다칠것도 갓다—多情하게 밧삭 바다까에 다가서잇는 瀟洒한 漁屋 또다시 묵떠러저 팔 굴한 沙濱 검은 바위 바위 沙濱엔 물결이 마라손 選手이 잉 千里바다가 疲勞워 하나하나 차례로 쓰러지고 검은바위 바위엔 멀리 자저 온 怒濤 인제야 맛낫다는 듯이 목잡고 울것이 엉크러저 니왓을 앙불고 달린다.

그러고 바다한가운데는 『스마—트』한 小型汽船이 한배가 한두隻—크기로보아 밀시 沿岸을 航行하는 배러만 내마음은 한편 멀니멀니 新嘉坡로 印度洋으로 多島海로 地中海로 작구 줄달음 친다. 다시 視線이 마조친다.



어亦 바다에 醉한듯. 『마드모와젤·主』의 눈은 행결 더아름다와젓다. 무엇을 꿈꾸고 생각한것일까. 내마음은 다시새로운 位置에서 이번은 若干 어색해한다. 自身어절수업시 한瞬間 얼굴이 따거워진다. 그러나나는 인제 아조 大膽하다.

『어데까지 가시오』

『東京까지가요』

눈길이 [illegible] 『마드모와젤·主』의 對答은 自然스럽고 閑靜하다. 나는 男裝을 더한다.

『먼길이십니다그려. 北京서부터오시는길엡니까』

『아니 天津서아요』

『東京엔 어데學校에 다니십니까』

『네 目白女子大學에 다녀요』

『그러면 專攻하시는것은?』

『日本文學이올시다』

『아 日本文學이세요 日本文學 滋味잇서요』

『滋味잇다는니 힘이 들어요』

『卽今 읽으시는것은 어떤 冊입니까. 滋味잇는 것입니까』

『아니요 別로 보잘것업는 것이야요 하도 가깝해서』

『마드모와젤·主』은 新聞겁질을 벗기며 들엇든 그의 『處女的情話』를 손에말어 쥔다.

『中國선 卽今 어떤作家가 만히 읽히는가요』

『네 別로 이러타할…』

이야기가 만하면 이야기할사록 나의 好奇心은 끄집어 올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境遇에잇서서도 度를 지나치지아니하는것이 모른다. 그러고 우리의 이 정은 [illegible] 에 往意하기始作한 여떠 두사내의 眼線이 귀찬키도하다. 나는 짐짓 다시 車窓을 내다보기로한다. 車는어는새 바다와 作別하고

들을달리고 마을을지나치고 川을 回避하고 물고잇다. 나는 저으히 疲勞웁다.

『마드모와젤·主』은 말아쥐엇든 그의 『處女的情話』를 펴들고 다시읽기始作한다.

나도 나의 『文藝』를 꺼내쥐고 冊속에 얼굴을파무더 본다. 冊에일마음도아니다.

『마드모와젤·主』과 또다시 이야기나 하면 할까. 車는 如前히 똑딱 똑딱. 그러나 車도 인제는 하도 支離해 거름빨이 떠진것갓다. 바로 겨테앉은 中年의 사내는 大體멧개채인지 또새로히 면소매에서 朝日하나를 끄내놀고 떡피우기 始作한 다. 자욱한 煙氣와 호호한 體臭가 갑작이 한거번에 코를 찌른 [illegible] 오르는 疲勞가 금시 한층더 해진다. 다음 停車하는데 [illegible] 어데인가. 그러고 京都에 닷는것은 大體 몃時쯤일까. 『플렛트·홈』의 新鮮한 空氣가 무척 그립다. 또한번 다리를 마음껏 펴보고도 싶다.

## 當選漢詩

滄東考選

題 盆梅

＝二等之一＝ 原州郡 [illegible] 洪春田

清寒疎瘦古盆梅
玉骨氷姿絕點埃
第一番風春已到
橫參落月夢初回
香腮不許蜂衛供
芳信無勞蝶使催
賴有主人扶護力
超然占得百花魁

(評曰) [illegible]

##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春寒
押 寒韻部 (古詩不取)
期限 三月十五日 (滄東考選)

## 名家秘書

## 學藝안테나

古書畫展覽會

今般和信은 皇紀二千六百年을 慶祝하는 展覽會의 하나로 새해의 新年壹事業 [illegible] 으로 千余一般의 公衆에게 名畫中의 古書畫의 出品을 [illegible] 하고 展覽會를 至十日부터 十七日까지 和信七層갤러리—에 서 開催할터이다. (寫眞은 展覽會…)

## 世界의 귀

### 文豪 메레지콥스키 스탈린을攻駁

【巴里發同盟郵信】 『神神의 死』 『背教者』 『피—터와알렉세이』의 三部作者로 世界的으로 有名한 帝政露西亞의 文豪 『드미트리·메레지콥스키—』氏는 目下 巴里에 亡命中인데 昨年十二月三十一日 巴里에서 發行하고 잇는 [illegible] 하엿는데 大要는 다음과갓다.

『余는 露西亞國民이 自發的으로 無辜한 芬蘭人에 對하여 侵略을 試하엿다고는 생각지안는다. 侵略의 張本人 이야말로 『스탈린』과 그一黨이다 蘇聯國民은 至今 스탈린의 鐵鎖에 얽매어저 何等의 自由도 容許되어잇지 아니하다 따라서 蘇聯國民에게 는 何等責任도업고 오직 『스탈린』과 그一黨만이 非難바더야 할것이다』 더욱 同抗議書에는 『노—벨』文學賞受賞者 『부—닌』其他 露西亞亡命哲學者 七名이 共同署名을햇다고 『르·타임스』 巴里特派員은報道하고 잇다.

(寫眞은 메레지콥스키)

## 作詞 作曲 公募

作詞—民謠風又는流行歌風으로아못조록朝鮮情緒를담은淸新한主題의內容을求함

作曲—指定歌詞一篇(當選歌詞一篇)合二曲을 請求함 (指定歌詞는 當文藝部에 請求할것)

期限—三月十日까지

賞金—作詞作曲共히入選第一席一篇式賞金各五拾圓次席一篇式賞金各三拾圓 (入選作의 版權은當社에歸함)

發表—文藝部—빅타—朝鮮版五月號

日本빅타—蓄音器株式會社 朝鮮文藝部

잇는 [illegible] 新聞紙上에 [illegible]

## 新刊紹介

▲半島に於ける 氏設定改名の手續(改正に關する制令の解說)發行所 京城府三坂通山ノ一 半島時論社 振替京城七八五八番 定價六十錢 送料三錢

▲林巨正 第四卷(火賊篇中) 洪命熹先生著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定價一圓 送料二十六錢

肌アレ クリンシンの三重作用이大評判!

三重作用으로 거치름모르는 美肌를 만든다

(1) 거치른살결을먼저淸掃함
(2) 同時에獨特한美容作用!
(3) 그대로化粧下!

クリンシン의 世界的流行!

▲普通크림의 二三倍는德用

006468

明色クリンシングクリーム (구린싱크림)

科學의 進步로 粉化粧의 方法이 一變!

크림을그대로 바르는것은 舊式

겨우數滴으로 化粧의 美와 保全이 全然달러

從來의 粉化粧은 왜 곱게 안되는가?

科學의 힘으로 粉化粧이 반드시 곱게된다!

粉化粧에 アストリンゼン은 世界的常識!

明色アストリンゼン (아스트린젠)

12—124

補血強壯 ブルトーゼ (부루토—제)

精力充實 抵抗力強化

各帝大病院常備藥 造血ホルモン

株式會社 藤澤友吉商店

B1442

# 皇紀二千六百年 記念大講演 ②

## 國家經濟와 個人經濟 ①

鮮銀理事 橫瀨守雄氏 講演

時間도만히 經過되엿는데 最後로三十分間 늘리기 日本에 잇서서의 國家經濟와 個人經濟가 어떠케 어우러잇는가 國家經濟는어떠케 進行되고잇는가 이에따르는 우리들의 個人經濟를 어떠케할것인가하는 問題에對하여 말슴하려합니다。

支那事變以來로 統制經濟라든가 戰時經濟라든가하는 思想、나라의 諸種政策에 對하여는 이미 新聞雜誌或은 講演等으로 여러분이 周知하실터이므로 別로히 새로운 이야기도업을것이나 一旦綜合해서 말슴하고저합니다。

### 協同的綜合的으로經濟運用

事變이 일어난後로 日本의經濟는 統制되여잇다는것은 國民으로서 國家로서 協同的으로綜合的으로 經濟를運用하자 어느一個의 目的에 對하여 生產消費或은 分配하는 所謂經濟行爲를 어느目標에 對하여 運用하여 가자는것으로서 이러한것을 漸次的으로하여오는것입니다 그中에가장 明確하게 法律로된것이 國家總動員法의 第一條입니다 이에依하면 國家總動員이라함은 戰時에 當하여 國防의目的을 達하기爲하여 나라의 全力을 가장 有効하게 發揮시키도록 人的及物的資源을 統制한다는것입니다。

### 國防充實하고 國民生活安定

이方針에따러 나라의 經濟를 어느目標에 向하여 運用하는데 그 目標는 第一에 國防의充實、卽 戰爭을하는데必要한 一切의物資—飛行機、軍艦、鐵砲、被服、汽車、船舶 一切의것을 戰爭에 勝利하도록만들고 그것을 戰場에 가저가서 戰爭하려는것입니다。

第二는 戰爭하지안는 銃後의 國民의 生活이 安定되도록 집이업다 먹을것이업다는것이 不足되지안토록 物資를 만들어 分配하자는것 大體로이 二個의目的을 達하기爲하여 가려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物資는 日本의國內에서 生產되는것만으로는되지안코 石油는 米國으로부터 사와야한다 고무는 馬來半島或은 자바로부터 사와야하며 鐵은 何分間은 外國으로부터 一部分은 買付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이에는 支拂할資金이 必要하고 그것을 만들기爲하여 產金을 奬勵하고 金을 만히 掘出하며 或은 個人이 가지고잇는 金을政府에서 買上하여 外國에 가저간다 다음에 國內에서 生產한 物資로서 餘剩된것을 外國에 輸出하고 或은 國民의 消費를 節約하여 그러한物資를 外國에 輸出한다 그리고 外國으로부터 買付하는 商品의 代價에 充當하자 이와가치 輸出製品의 製作을 增殖하는것도 國家의綜合經濟의 目的으로 되어잇습니다。

어러한 目的下에 나라의經濟를統一하고 戰爭에는 必勝한다는大信念을가지고 戰爭中으로國內의衣食住는 반드시 充足시킨다는 二個의原則이업시는 戰爭을遂行할수업습니다。歐洲大戰爭에잇서서의 獨逸이 敗戰한것은 戰場에서敗하지안코 國內에서敗하엿다고 생각한것、이두가지가 原因이라고 學者는말하고잇는데 今日에도 그러타고생각합니다。

### 왜統制하는가 貨幣經濟最後

왜 統制하느냐하면 日本의過去十年의 經濟는 所謂自由經濟엿습니다。自由經濟는돈버는主義에서 하는것입니다。各人이自由로히 營利를하는것이 나라가 繁榮하는基本이다 조흔 商品을 低廉하게팔면 돈을모을수잇고 그러케하면生產力擴充도 될수잇는것입니다 이러한主義로 長年發展하여왓스나 그것이貨幣經濟의最後라할가 營利는良品을 販賣할것이아니고 惡品을비싸게 파는것이라고 생각하게 될만큼 變化되엿습니다 自由競爭을할때는 惡品을비싸게팔면 그商品은 사는사람이업고 良品을販賣하면 사는사람이 만타。그런데自由競爭이업서지고 一個의經濟目標으로 되어 良品을賣하는 사람이업스면 惡品을 高價로 賣却할수가잇습니다 이러한 弊害는 當然한 事態라합니다。營利主義가 生產擴充으로되지안는 現象을보이게되엿습니다。

이러케되어서는 나라의經濟를 行할수업는點에서 各國이모두 今日의經濟를 부르짓고 一個의 目標에向하여 經濟를 統制하여가도록 變化되엿습니다。

### 個人의經濟는 依然營利主義

그러면 個人經濟는 어떠냐하면 이것은 依然히營利主義의經濟입니다。그것이 今日에잇서서 統制되고잇습니다。今日國家經濟와 個人經濟가 合致되지안는原因이 되어잇스므로 어떠가지로 實質的으로 되지안는것입니다。國家經濟가 統制되어잇는데 個人經濟는 依然自由經濟이며 營利主義經濟인 때문입니다。例컨대 國家로서는 쌀을만히 產出하여야할것인데 個人으로선 京城附近에 水田이잇스나 水田으로서는 現在의쌀의 價格으로서는 採算이 되지안는다하야 水田을매우고 宅地로하면 一坪二十五圓乃至三十圓이라는 地價로 되는만큼 米作을할것보다 宅地를 賣却하면 有利하게되는 現象입니다 이러케되면 所謂의 生產擴充計畫中에 드러잇는 ... 이것이 今日의 個人經濟입니다。그러므로 누구나 田作을하지안코 土地를 宅地로 만드러 賣却하면 대단히 有利합니다 그런데우리들의 個人經濟는 營利經濟이므로 ... 그것을 어떠케 制止하여갈가하는것이 이제부터의日本의 큰問題입니다。... 그貯蓄奬勵를하는데는 ... 이러한 原因은 그보다도더 큰 增加되는原因이 잇는것입니다。(계속)

# 鮮、臺銀行券發行 預託準備制採用

## 日銀에의預金을發行準備로 櫻內藏相、議會서言明

【東京電話同盟】櫻內藏相은 十二日의 衆議院豫算總會에서 小笠原三九郎氏(政中)의質問에 答하여 鮮臺銀行兌換券發行制度를 日銀預託準備制度로 變更하는데 關하여 目下 大藏省事務當局에서 充分히 調査考慮中이라는答辯을 明하여 注目을끌엇는데 大藏省으로선 日銀兌換券及 鮮臺兩銀行發券制度의 劃期的改正과 關聯하여 同樣의主旨에서가치 臨時立法의形式으로 從來의 日銀兌換券準備制度를 預託準備制와 併用하고 實質的으로는 兩特銀의 發券制度를 日銀兌換券準備制度로부터 日銀預金準備制度로 轉換시키기로 方針을決定하고 目下具體案作成을 急히하고잇다 卽現行의 朝鮮銀行法第二十二條及臺灣銀行法第九條에依하면 兩行은 銀行券發行高에 對하여 同額의 金貨地金銀 又는 日銀兌換券을 發行準備로서 規定하고잇는데 今回다시 發行準備로서 兩行의 日本銀行에의 預金을加하려는것으로 이로써 兩銀行券增發이 日銀兌換券膨脹에 미치는 影響을 막을 意圖를 가지고잇다 그리고 現在 鮮臺銀의 準備에 充當되는 日銀兌換券은 三億三千萬圓(二月三日現在)의 巨額에 達하는데 預託準備制度가 實施되면 日銀券準備充當額中 兩行의營業上 繼續하여 保管이必要한 小額의兌換券(約二千萬圓가량)을 除外하고 準備에서 解除되어 日銀에의預金으로 振替되는 三億圓가까운日銀兌換券이 發行高에서脫落되어 現在 通貨膨脹이 주는心理的影響을 減殺하는 效果를 期待할수잇게된다 또現在諸外國中 預託準備制度를 採用한것은 滿洲、印度等의 英國殖民地銀行에서 그例를볼수잇다

# 原料大豆輸入全無로 朝鮮內油房操業休止

滿洲國專管公社에서는 朝鮮向의原料大豆는 安東、北朝鮮兩輸出組合에配定하엿스나 兩組合은 內地臺灣의輸入組合이 成立되어잇지만 朝鮮은大豆輸入組合이 設立되어잇지 안키때문에 取引이困難하다고하여 口錢이만흔內地에만 積出하는狀況이므로 總督府商工課에서도事態가容易치안흠을보고目下大豆輸入組合을組織하고저起案中인데農林局側은朝鮮中央雜穀輸入組合이잇스므로別個로組合을設立할必要가업다는見解를堅持하고잇는데 農林局內에서도肥料係側에서는輸入組合을至急組織할 必要가 잇다는 側도잇스므로 目下 兩局間에 微妙한空氣가 떠돌고잇서 組合의 誕生도 停滯되고 其推移는 매우注目을 끌고잇다 이로 因하여 大豆粕의 原料配定은 不可能한 狀態에잇고 日陞公司及 北朝鮮製油는 操業休止의 不得已한狀態에잇는바 今肥料年度의 大豆粕은 一滴도 入荷되지안흘狀況이므로 重大問題로서 大豆輸入組合誕生의緊急性을부르짓고잇다

## 日本高周波 增資認可 十二日附로

日本高周波重工業의 四千萬圓增資는 去八日의 株主總會의決議에 基하여 認可申請中이던바 十二日附로써 正式認可되엿다

## 日印代表會商

【宇品十二日發商通】日印會商은 지난 一月十五日 日本側代表 若松總領事와 印度側代表 아랑·로이氏와의사이에 今年度初會談을 開하엿는데 今十二日 日印兩國代表는 會談을하고 日印通商條約附屬綿布、及棉花에關한 議定書를 ...

# 特殊鋼移入杜絶 配給獲得에盡力

最近朝鮮內에잇서서의 特殊鋼의移入은 거의杜絶된形勢에잇서 機械工業 鑛業方面의操業上 重大支障을 招來하고잇는데對하여 總督府企畫部에서는 特殊鋼의朝鮮內需要의配定을 要請하고 價格統制에依한 配給을하기로 決定하고 目下企畫院方面과 交涉中인데 統制品目은 大體로如左하다

▲炭素工具鋼 ▲特殊工具鋼 ▲高速度鋼 ▲不銹鋼 ▲彈工鋼 ▲비네鋼 ▲니켈鋼 ▲크롬몰리브덴鋼 ▲耐酸鋼 ▲크롬鋼 ▲다이스鋼

# 硫安助成金 朝鮮서도交附

## 約百五十萬圓豫定

農林省에서는 硫安의生產維持及 增產을期하고 硫安의助成金(百十七萬圓가량)을 交附하기로되어 總督府의 右에對한 態度가 注目되엇는데 朝鮮만獨自의方針으로 나가는것은 困難하므로 結局內地와가치 助成金을交附하기로 決定하고 目下이에必要한 調査及 要求의準備를하고잇다。卽朝鮮은 朝窒一社인데 同會社는 生產코스트의低廉으로 現在도 莫大한 過剩利潤을내고잇서 損失의 補償에 類하는 助成金을 交附하는것은 反對가 强하엿스나 內地移入硫安에 對해서도 助成金을 交附하기로되엇고 다시朝鮮內에 輸移入되는硫安에만 交附할수도업서 結局朝鮮도 助成金을 交附치안흘수업시 配給의混亂을 勞心되어 追隨하게 되고 朝鮮에잇서서의 助成金交附額은 約百四、五十萬圓에 達할豫定이다

# 熟練工養成

## 機械科二百名採用

朝鮮工業協會熟練工養成所의 新年度養成生은 機械科約二百名을 採用키로 決定하고 三月二十七八兩日 京城府長谷川町公會堂에서 採用試驗을 執行할터인데 應募資格은 尋常小學卒業程度 年齡滿十六歲로부터 二十歲까지의者 願書受付期日은 三月二十五日로 詳細는 同協會又는 各道鑛業課(商工課)에 照會하면 規程及入所案內書를 交付하리라한다

# 野村證券支店 三月一日開業

野村證券에서는 京城에支店을設置하고저 目下總督府에支店設置의認可申請中인데 朝鮮取引所의實物市場員을條件으로 近日中에認可될모양인바 大體로三月一日부터開業하고저 諸準備를進行시키고잇다 이미 事務所도 東拓別館內에 開設하엿는데 初代支店長에는 雨森恒次郞、支店長代理에는 相月文治의兩氏가決定되엇다

# 日本油指水產創立

【東京電話同盟】日本油指水產組合의 設立發起人會는 十二日午前十時부터 赤坂三會堂에서 農林省水產局長以下係官 臨席下에 開催하고 同組合創立總會를 三月十五日에 開催하기로決定、卽時그準備에 着手하엿다 그리고 同組合은 內地產魚粉及 其他水產物 肥料製造業의 改良發展及 此等製品의 販賣輸出의 增進을 圖하여 組合共同의 利益을 增進시키려는것이다

# 세멘트輸送協議

## 年間百三十萬噸確保

總督府商工課와 朝鮮세멘트聯合會와 鐵道局에서는 數日前에 昭和十五年度의세멘트輸送에對한 協議를 한結果 結局一年동안에 一百三十萬噸의 輸送을確保하기로 되엿다 이세멘트는 그產地인勝湖里、馬洞、海州、川內里로 古茂山等地로부터 每月平均 輸送을하여 朝鮮內土木其他工事場의 需用에供給하게될터이다 이것은 絶對로外地에는 輸送치안코傳票制로各工事場에配給하게될터이다

# 外國爲替基金 運用狀況報告

【東京電話同盟】輸出貿易을 促進시키기爲하여 輸出原料資材確保에 充當할手段으로서 再昨年末日銀正貨準備中에서 三億圓을 分轄해서 設置한外國爲替基金의 運用狀況에對하여 櫻內藏相은十二日午後의 衆議院豫算總會에서 ...

# 產繭計畫協議

## ◇道產業主任會議今日開幕

大正十四年에樹立된 十五個年產繭百萬石增收를 期하는 第一次增產計畫은 十四年度로써 完了되엇스므로 農林局에서는 第二次六個年五十萬石의 產繭急速增產計畫을 樹立하고 十五年度부터 實施에옮기기로된바 右增產計畫을 協議하는 道農業主任協議會는 二月十三日부터 十六日까지 四日間에亘하여 總督府及水原農試에서 開催되는데 初日은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催하고 湯村農林局長 厚地農務課長 猪股技師外係官 各道產業主任官 道原蠶種製造所長等 約五十名이出席 湯村農林局長의訓示指示가잇고 局長統裁下에 諮問에 對答하기 午後四時散會 二日도 總督府에서 會議를續行하여 協議하기로 되엇다 諮問事項及協議事項은 如左하다

一、指示、諮問事項

昭和十五年 一月二十日附 朝鮮總督府令 第九號로써 公布한新規追加의 蠶種에對하여 奬勵에 遺憾업기를期할것

二、昭和十五年度飼育蠶品種에 對한 道、蠶種製造業者、蠶絲業者의意見

三、昭和十五年度 夏秋期別蠶作에關한記載事項

(가) 作物의槪要

(나) 蠶作과蠶品種名及新品種의成績

(다) 蠶作의主要한原因

(라) 蠶作에對한道의措置及對策

四、現在의 朝鮮指定品種의追加希望及 廢棄하여도 無妨할것으로認定되는品種

協議事項

(一) 新增產計畫遂行方途

(二) 蠶種與共通試驗에關한件

(三) 桑田間作及混作試驗에關한件

(四) 在來桑田의共通試驗

(五) 桑의試驗育成에關한件

(六) 桑苗生產方法에關한件

(七) 蠶作安定에關한件

# 事業報告 十五日까지

臨時資金調整法第十六條에 基하여 昭和十五年度國內資金調査規則에 依하여 報告書提出期限은 오는二月十五日로 切迫되엇스므로 아직提出치안흔者는 期限까지에 直接朝鮮總督府로 至急報告書를 提出하여야한다 이報告書의 提出義務者及樣式等은 一月十五日의 朝鮮官報에 揭載되엇는데 報告義務者는 如左하다

一、昭和十五年度中에 所要資金十萬圓以上의 設備의 新設擴張又는 改良을하려는 計畫(昭和十五年三月三十一日以前에着手한것을 包含)을가진者 第一 ...

# 朝鮮內手形交換

## 一月中에激減

一月中의朝鮮內手形交換高는 三十五萬九千四十四枚 三億二千二十一萬六千六百六十二圓으로 前月中에比하여 十萬八千九百十八枚 一億二千四百二十二萬四千百六十五圓의 各其減少를 示하엿다 前年同月에比하면 三萬三千二百三十一枚 一億八百五十九萬二千二百二十四圓의 增加이다

# 對滿支貿易

## 一月中增加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一月中의 對滿洲國、關東州、中華民國及香港貿易狀況은如左하다 (單位千圓)

| | 本月 | 前年同期 | 增減 |
|---|---|---|---|
| 本月出超 | 四七、一二七 | | |
| 前年同期出超 | 三三、九七五 | | |
| 輸出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輸入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合計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一月中에잇서서의 內地、臺灣、朝鮮의 對滿洲國、關東州、中華民國及香港貿易은 右表와如히 前年同期에 比하여 輸出五一%、輸入二〇%가 各各增加하고 輸出入合計 四三%의 增加이다

# 滿洲生米五萬石買付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春窮期를目前에앞두고 食糧充實에盡力中인데 滿洲國에서는 大豆、粟을 三月末까지에 百萬石輸入하는外에 其他의 食糧雜穀도 可及的輸入할 方針으로 農林局 立山技師가 渡滿活躍中인바 同氏로부터 生米五萬石의入手가 完了되엇다는 朝報가 十三日 總督府에왓다 이外에도相當數의 鮮米가 잇는모양으로朝鮮에잇서서의 食糧은 去益安定感을 加하게되엇다

# 朝鮮運送에서 國際運輸引繼

## 淸津에重役駐在

朝鮮運送에서는 北鮮線淸津上三峰間의 鮮滿經由元貨物에 伴하여 右區間의 國際運輸의 營業事務一切의引繼를 受키로되어 準備中인데 淸津支店에는 約百名의社員을 駐在케할 豫定이오 各船會社의代理店도 現狀대로 引受케되엇다 奧地와의 折衝事務의 重要性에鑑하여 淸津支店에는 重役級의支店長 一名을 駐在케하기로 決定하엿다

# 乙銀의利下 朝鮮도追隨

東京大阪에잇서서의 乙種銀行은定期預金利率을 一厘引下키로 決定하고 十五日부터 實施하기로되어 右에對한 朝鮮側의 態度는 매우 注目되어잇는데 財務局에서는 朝鮮도 同樣追隨할意嚮이며 業者의申請을 기다리어 實施할方針인데 其實施時期는十五年度增稅의 課稅率決定後로될것이며 따라서 多少遲延될모양이나 다만利下率은 內地보다도 大幅일것으로 본다

▲金子隆三氏(殖銀東京駐在理事) 株主總會에出席코자 十四日午後一時四十五分入京

▲松井彥治郞氏(殖銀大阪駐在理事)同上

▲原邦道氏(殖銀監事)同上

▲上內彥策氏(東拓理事)東京에出張中이던바 十二日歸任

▲慶澤秀次郞氏(鮮銀支配人)滿洲에出張中十七日歸任豫定

▲草間秀雄氏(日本產金振興副社長)十九日渡東豫定

▲高橋省三氏(日本高周波重工業專務)十九日 午後九時二十分發 列車에

# 寸鐵

▼…鮮、臺兩銀行券發行制度 日銀預託準備制度로 變更을 하겟다고 藏相이言明。

▼…日本銀行에의 預金으로 日銀券膨脹은 막을수잇겟스나 이것은 表面糊塗策에不過。

▼…此所謂『눈가리고아웅』하는수작이아닐가 通貨膨脹의心理的影響은 減殺되겟스나鮮銀券膨脹은 엇지할것。

▼…英國殖民地銀行에서 採用하는制度를 반드시朝鮮에 採用할必要가 切實할까。

▼…莫大한 過剩利潤을내고 잇는 朝窒에硫安助成金百五十萬圓交付。

▼…內地와가튼 步調를取키 爲한것이겟지만 朝窒로서는땡。

▼…富籤發賣는 統制經濟下에서 許諾되는모양。●

# 株式 高下不定 採合

## 今日의市勢 十三日

**前場低迷** 今朝는東新 不變인 百三十八圓丁 鐘紡九低인 百六十六圓丁 鐘新二低인 百五圓五에寄付된後鐘新은다시 百三十七圓九、大新七十二圓丁、鐘紡百六十六圓丁 ... 結局東新百四十六圓丁

**後場反高** 後場은 東新四高인 百三十八圓三、鐘新一圓一高인 百五十圓七에 寄付後頭重商狀을呈하엿다

**積極行動躊躇** 對米關係의 推移如何는 市場에서가장關心을가지고잇는것의하나로 ...

**株** …全朝도依然鐘紡 鐘新이 軟化되엿든外는大體不動狀態▲一時그리케도 旺盛하던 現物買가 完全히一服狀態에 들어와休息을 거듭하고잇스니 淸算의活躍도難期 ▲市勢步調로보면 一段下値가 잇슬듯하나 돈의 威力으로 下支되어잇는모양 生絲의 波瀾商狀도 株에不好한反響을주고잇는듯 ▲雌伏時期?

# 延取 無賣買로 閑散

前場不成 今朝도亦是 無賣買이엇다

# 現物續低

現物은 一般으로 續低 ... 東京國債 ▲二回四分 一〇三、五五 ▲十九年物 一〇三、... ▲二十三年物 九八、七〇 ▲二十八年物 九八、二〇 ▲佛貨四分 一九九、四〇 ▲米貨五分 三九八、—

#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朝鮮內株式 / ◇內地株式 (values [illegible])

# 海外經濟 十二日

[illegible]

# 京城物價 十三日

◆白米 ◆雜穀 ◆綿布 ◆毛絲 ◆木綿 ◆石炭 ◆石油 ◆木材 ◆紙類 ◆鐵物 ◆金銀 (values [illegible])

# 銀行券 十三日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values [illegible])

#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東京手形交換高 ◆大阪手形交換高 (values [illegible])

#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十六分七 /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分一 (以上朝鮮銀行賣)

# 株式

◆朝取短期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東京現株 ◆朝取短期取組 (values [illegible])

# 棉花 / 綿布 / 生絲 / 綿油粕·麥粉

◆大阪 (values [illegible])

# 今日財外計 十三日

◆米穀(京城、公定價) 正租◎銀坊主(三等)斤三錢三〇 玄米◎銀坊主(三等)石四〇圓〇六 七分搗白米(小賣價)同 [illegible]

◆雜穀(京城、卸賣價(公定)) 大豆 [illegible] 粟 [illegible] 大麥 [illegible] 小豆 [illegible]

◆商品(先限單位錢·圓) (values [illegible])

重·石·水·鉛
金買入銀
三昌鑛業所
京城南大門通二の十一
(朝鮮信託前)
電話本局三〇二五番

# 三國志 【98】

韓龍雲 譯 熊超 畫

張繡와 曹操 一

여러사람이 급히 구할새 곽가가 말하되

「예전 春秋에 법은 노픈데 더하지 안는다 하엿스니 승상이 대군을 거느리거늘 어찌가히 스스로 죽으리오」

조조가 한참잇다가 말하되

「이미 春秋에 법은 노픈데에 더하지 안는다는뜻이 잇스면 내가아즉 죽기는 면하리라」

하고 칼로 자기의 머리털을 베어서 땅에 던지며

「머리털을 베이므로 머리를 대신한다」

하고 사람을 시켜서 머리털을 삼군에 전하야뵈이며

「승상이 보리를 밟앗스매 마땅히 머리를베어 호령할지나 이제 털을베어 대신하다」

하니 삼군이 두려하여 군령을 쫓지안는사가 업섯다。

장수가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옴을 알고 급히 글을 유표에게 보내어 뒤에서 구원하게하고 한편으로 뇌여(雷叙)장선(張先) 두장수로 군사를 거느리고 성에나가 대적할새 장수가 말을나가 조조를 가리치며 꾸짓되

「너는 거짓 어질고 의잇는체하되 염치가업는 사람이라 금수로더부러 무엇이 다르리오」

조조가 크게노하여 허저로하여금 말을 나가게하니 장수가 장선으로 싸우게할새 다만 삼합에 허저가 장선을 베이니 장수의 군사가 크게 패하는지라 조조가 군사를이끌고 쪼처서 남양성 아래에 이르니 장수가 성에드러가 문을닷고 나지안는지라 조조가 성을에우고 칠새 호를 파겨이 심히넓고 물이깁허서 급히치기가 어려운지라 군사로하여금 흙을가저다 호를메이며 또 뵈자루에 섭과풀을너어서 성시가에 싸어 사다리를 만들어 성안을 엿보고 조조가 스스로 말을타고 성을돌며 보더니 사흘만에 군사를 명하여 서문 모롱이에 나무와풀을 만히싸코 모든 장수를모아 그곳부터 성에 올르게 하엿다 성안에서 가후가 그러한광경을 보고 장수에게 말하되

「내가 조조의 뜻을 아럿스니 어제가히 계교를 취하여 계교를 베풀지라 내가 성위에서 보매 조조가 성을돌며 볼지가 사흘이라 조조가 성의동남쪽의 흙빗이 갓지아니하고 성첩이 반이나 허러진것을보고 그곳으로부터 치고자 하는고로 짐짓 성의 서북쪽에 나무를싸어 거짓 형세를 베푸러 우리로하여곰 군사를서북으로 모오게하고 벽이 어둡뒤에 반드시 동남쪽으로달려들것이란」

「그러면 어찌하리오」

「그것은 쉬운일이니 내일에 정병으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행장을 가볍게하여 다 동남편 집속에 감추게하고 백성들을 군사처럼 꾸미어 서북의 군사가 동남쪽에서 성을 지키는체하고 밤에 조조가 성에 오르거든 그대로 두엇다가 성위에 이르거든 호포를 노아 복병이 일제히 이러나면 조조를 가히 사로잡으리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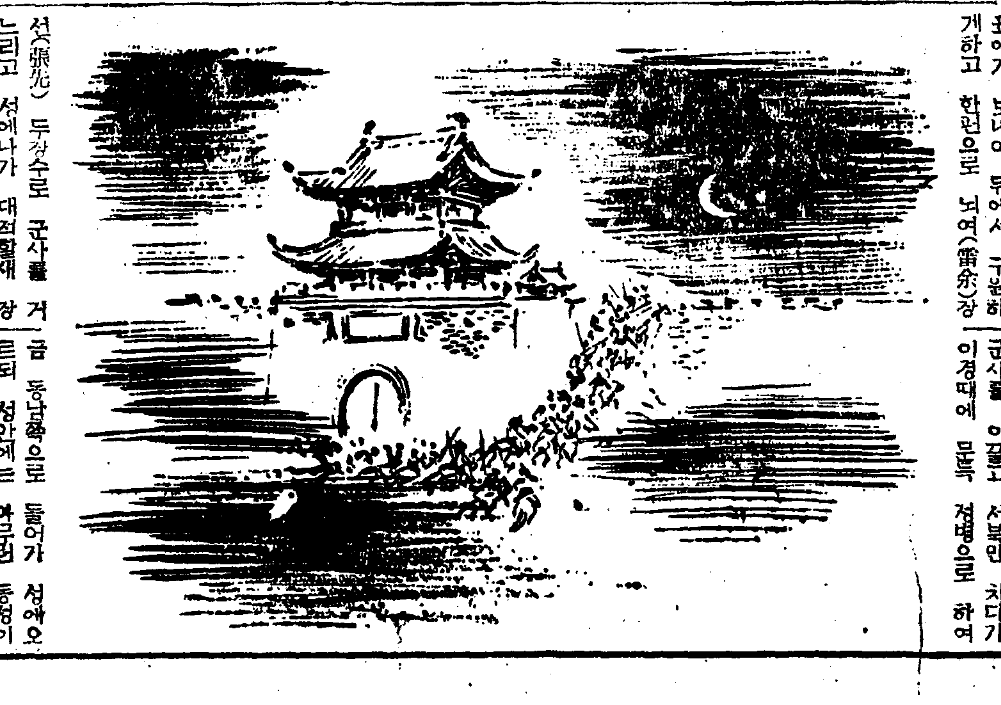
장수가 그계교를 조찻더니 염탐이 조조에게 보하되

「장수가 군사를 다 거두어서 서북만 지키고 동남은 비엇다」

하니 조조가 말하되

「나의 계교에 떠러젓다」

하고 군중에 영을나려 가만히 깽이와 갈구리등 성에오를 제구를 준비하고 나서는 다만 군사를 이끌고 서북만 치다가 이경때에 문득 정병으로 하여금 동남쪽으로 들어가 성에오르되 성안에는 아무런 동정이 업는지라 여러군사가 마음을노코 일제히 들어갈새 한소리 호포가 들리면서 복병이 사방에서 일어나는지라 조조의 군사가 급히 물러가더니 뒤에서 장수가 친히 정병을모라 직처오매 조조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수십리를 물러나매 장수가 날이 발글때에서야 비로소 군사를거두어 성에 드러갓다。



조조가 패한군사를 점고하니 군사를 꺽긴것이 오만여인이오 치중을 일흔것이 수가업고 여건과 우금이 각각 상하엿다

가후가 조조의 패하여 다라나는것을 보고 급히 장수를권하여 글을 유표에게 보내어하여금 군사를이르켜 조조의 도라가는길을 끈케하엿다。

유표가 글을보고 곳 군사를 이르키고저 하더니 홀연히 보하되 손책이 군사를호구(湖口)에 둔첫다 하는지라 괴량이말하되

「손책이 군사를 호구에 둔친것은 조조의 계교라 이제조조가 새로 패하엿스니 만일 형세를타서 치지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근심이잇스리라」

유표가 황조로하야금 애구를 굿게 지키게하고 자기는 스스로 군사를 거느려 안중현(安衆縣)에 어르러 조조의 뒷길을 끈코 한편으로 장수에게 모오기를 언약하니 장수가 유표의 군사가 이른것을 알고 곳 가후와가치 군사를거느리고 조조를 엄습하엿다